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대조 분석을 통해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의 문제점 탐구 및 교육 방안

팜티튀린(Pham Thi Thuy Linh)*

Pham Thi Thuy Linh, Korean and Vietnamese Phonological contrasts and Pronunciation training plan. Korean and Vietnamese are easy to be accessed because they are in a same Chinese character's cultural. Beside, Vietnamese is language having tones which make other people be difficult to learn Korean. Therefore, it is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to compare vocal sound system and phonological phenomena in Korean and Vietnamese and figure out the commons and differences of these three languages through contrastive analysis. The thesis inquires into the vocal sound system and phonological phenomena of consonants and vowels of Korean and Vietnamese. In the first chapter, it inquires into consonants system of Korean and Vietnamese. By analyzing about consonant system of three languages through contrastive analysis, and suggests measure of Korean consonants pronunciation education. In the second chapter, it inquires into vowels system of Korean and Vietnamese and analyzes it contrastively. It suggests measure of vowel pronunciation education for Vietnamese are learning Korean. In the third chapter, it inquires into intonation and accent of Korean and Vietnamese. It suggests measure of proper pronunciation education after looking into the differences of two languages. After that, two languages are analyzed through contrastive analysis. This thesis suggests proper pronounced education after contrasting analysis of vocal sound system of Korean and Vietnamese for Vietnamese learners. I have hoped this thesis is helpful for the language learners since the studying of pronounced education is steadily expanded.

Keywords: Vietnamese learners, Korean and Vietnamese phonological contrasts, Korean pronounced education.

1. 들어가기

한국어를 교육해 본 경험이 있거나 외국어를 배워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대상 언어 간의 관계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외국어 학습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학습자의 모국어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외국어를 배울 때에 학습자들의 모국어가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이 다르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60%의 비슷한 소리나 발음이 있는가 하면 베트남에서는 11 세기부터 유교의 발달에 따라 한자음이 차용되어 만들어진 베트남의 독특한 쓰놈(Chu Nom)이 있었다. 베트남어에는 한-베트남어 (한-벧)와 순베트남어가 있는데 현재 베트남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어 어휘도 60%의 한-벧어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언어상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

* 호치민시외국어정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어는 성조어이다. 그러므로 성조를 가진 베트남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대조를 통해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의 문제점에 대해서 탐구해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대조

2.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 대조 분석

한국어에는 19 개의 자음이 있다. 이는 조음위치에 의하여 분류하면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이 있다.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양순음은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치조음은 혀끝과 윗잇몸이 서로 닿아서 나는 소리이다. 여기에는 각각 /ㅍ, ㅑ, ㅓ, ㅕ, ㅛ, ㅜ, ㅠ, ㅡ, ㅟ, ㅢ, ㅤ, ㅥ/이 있다. 경구개음은 혀바닥과 경구개 즉, 입천장의 딱딱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ㄷ, ㅌ, ㅊ/가 있고, 연구개음은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연한 부분인 연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ㄱ, ㅋ, ㆁ, ㅇ/이 있다. 마지막으로 후음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인데 /ㅎ/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 자음은 조음방법에 의하여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분류하는데 장애음은 모두 무성음으로 다시 폐쇄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분류하고, 공명음은 모두 유음과 비음으로 분류한다. 한국어의 자음 체계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음위치 조음방법		양순음	치조음	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폐쇄음	평음	ㅍ [p]	ㅌ [t]		ㄱ [k]	
	경음	ㅑ [p']	ㅕ [t']		ㅋ [k']	
	격음	ㅓ [p ^h]	ㅛ [t ^h]		ㆁ [k ^h]	
마찰음	평음		ㅟ [s]			ㅎ [h]
	경음		ㅢ [s']			
	격음					
파찰음	평음			ㅈ [tʃ]		
	경음			ㅊ [tʃ']		
	격음			ㅉ [tʃ ^h]		
비음		ㅛ [m]	ㅤ [n]		ㅇ [ŋ]	
유음			ㄹ [r, l]			

<표 1> 한국어의 자음체계¹⁾

베트남어는 조음위치를 입술, 혀, 성문 등 3 개의 기준으로 분류하면 순

¹⁾ 이익섭(2007), 『국어학개설』, 學研社. p.55, 표 2-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대조 분석을 통해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의 문제점 탐구 및 교육 방안

음, 설음과 성문음이 있다. 순음은 /p, b, b, f, v/가 있으며, 여기서 다시 /p, b, m/의 양순음, /f, v/의 순치음으로 구분된다. 설음은 /t, t', d, z, s, n, l, t, s, z, c, n, x, y/ 의 15개인데, 이것은 다시 전설음 /t, t', d, z, s, n, l, t, s, z/ 10개, 중설음 /c, n/ 2개, 후설음 /k, ŋ, x, y/ 4개로 분류된다. 전설음은 다시 치음, 치경음과 권설음으로 구분되며 즉, /t, t', z, s, n, l/ , /d/ , /t, s, z/의 3계열로 구분된다. 성문음은 /ʔ, h/ 2개가 있다.

그리고 입술, 혀, 성문 등으로 조음위치로 하는 베트남어 자음은 조음방법에 의하여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분류하는데 장애음은 모두 무성음으로 다시 폐쇄음, 마찰음으로 분류하고, 공명음은 모두 유성음으로 유음과 비음으로 분류한다. 베트남어의 자음 체계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 류		양순		전설			후설	성문
		양순음	순치음	치경음	권설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폐쇄음	무성무기	p [p']		t [t]	tr [t̚]	ch [c]	c/k/q [k]	[ʔ]
	무성유기			th [tʰ]				
	유성무기	b [b]		d [d]				
마찰음	무성음		ph [f]	x [s]	s [s̺]		kh [x]	h [h]
	유성음		v [v]	d/gi [z]	r [ʐ]		g/gh [ɣ]	
비음		m [m]		n [n]		nh [ɲ]	ng/ngh [ŋ]	
유음				l [l]				

<표 2 > 베트남어의 자음체계²

베트남어의 자음은 단자음과 복합자음으로 구분하는데, 단자음은 /b, c, d, d̥, g, h, k, l m, n, p, r, s, t, v, x/ 16개와 복합자음 /ch, gh, gi, kh, ng, ngh, nh, ph, qu, th, tr/ 11개가 있다. 여기서 복합자음에는 자음과 자음의 결합으로 된 /ch, gh, kh, ng, ngh, nh, ph, th, tr/가 있으며, 자음과 모음으로 결합으로 된 /gi, qu/가 있다. 단자음 16개와 복합자음 11개, 총 27개이나 실제로 음의 숫자는 이보다 더 적다. 왜냐하면 /c, k, qu/는 모두 한국어의 /ㄱ/음이고 /g, gh/는 둘다 /ㄱ/음이며, /ng, ngh/는 둘다 응음 또한 북부지역 발음 /d, gi, r/는 모두 /ㄷ/음 등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27개 음보다 적음을 잘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의 조음위치와 조음방식을 비교해 보았다. 두 언어의 자음 차이를 쉽게 알 수 있기 위해서 다음의 도표를 제시한다.

² 베트남어의 자음체계는 Nguyễn Văn Huệ (2008)의 목록과 조명숙(1998, 2005)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조음위치 조음방식		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양순음		순치음		치경음		권설음		한	베	한	베	한	베
		한	베	한	베	한	베	한	베						
폐쇄음	평음	ㅂ [p]	b [b]			ㄷ [t]	t [t]				ch [c]	ㄱ [k]	c/k/q [k]		?
	경음	ㅃ [p']				ㄸ [t']	đ [d]					ㄲ [k']			
	격음	ㅃ [pʰ]	p [p']			ㅌ [tʰ]	th [tʰ]					ㅋ [kʰ]			
파찰음	평음									ㅈ [tʃ]					
	경음									ㅉ [tʃ']					
	격음									ㅊ [tʃʰ]					
마찰음	평음				ph [f]	ㅅ [s]	x [s]		s [ʃ]			(=)	kh [x]	ㅎ [h]	h [h]
	경음					ㅆ [s']									
	유성음				v [v]	(=)	d/gi [z]	(=)	r [ʒ]			(=)	g/gh [ʒ]		
비음		ㅁ [m]	m [m]			ㄴ [n]	n [n]				nh [ɲ]	ㅇ [ŋ]	ng/ngh [ŋ]		
유음						ㄹ [r,l]	l [l]								

<표 3> 한국어 · 베트남어의 자음 대조

위의 표를 보면 베트남어의 자음이 한국어 자음보다 비교적 양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음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어 자음에는 파찰음이 없는 것이다. 베트남어에는 파찰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ㅈ, ㅊ, ㅉ/의 자음들을 발음할 때 어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베트남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상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어 음문상에 구개음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초급 단계부터 올바른 발음 교육을 적용하면 학습자들의 파찰음 발음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마찰음은 평음과 경음으로 구분되는데 베트남어의 경우 유성음과 무성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위의 표는 두 언어의 자음 차이를 쉽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양 언어의 마찰음은 평음, 경음과 유성음으로 구분하였다.

베트남어 자음에 한국어와 같은 평음이 있어 한국어의 평음을 발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단음절 고립어이자 성조어인 베트남어 발음 시 단어에다 악센트, 즉 단어의 강세를 넣는다 하더라도 단어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성조어인 베트남어권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보인다.

또는 /ㅍ/의 경우 베트남어에서는 순치음 /ph [f]/와 같은 조음 위치와 비슷한 음가를 가져 양순음이 아닌 순치음으로 발음하는 오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리고 한국어의 유음인 /ㄹ/이 초성으로 올 때 [r]으로 발음되는데 종성으로 올 때는 [l]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어에는 한국어의 /ㄹ/과 같은 자음이 있는데 종성 자리에 올 수 없는 /r/와 /l/가 따로 있다. 따라서 베트남어권 학습자들이 초성 자리에 오는 /ㄹ/ 발음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종성 자리에 오는 /ㄹ/ 발음 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어가 조음방식에 따라 모두 폐쇄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한국어 폐쇄음과 파찰음은 평음, 경음, 격음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베트남어의 경우 크게 무기음과 유기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한국어의 마찰음은 평음과 경음으로 구분되는데 베트남어의 경우 마찰음과 같이 유성음과 무성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따라서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 시 무성음과 유성음의 변별력이 뛰어

나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베트남어의 폐쇄음은 기류의 유무에 따라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나뉜다. 폐쇄음에 속하는 유기음은 /p/, /t/, /k/, 무기음에 속하는 /b/, /d/, /g/ 이다. 여기에서 한국어의 경음 /ㅂ/, /ㄷ/, /ㄱ/은 베트남어의 무기음인 /b/, /d/, /g/와 거의 비슷한 소리로 대응될 수 있고, 한국어의 격음 /ㅌ/, /ㅋ/은 베트남의 유기음 /th/, /kh/와 거의 비슷한 소리로 대응될 수 있다.

한국어 자음은 평음, 경음, 격음으로 분류되는데 베트남어 자음은 조음 방법에 의하여 한국어와 같은 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음이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하나의 발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음 /ㅃ/, /ㄸ/, /ㄲ/은 베트남어에 대응되는 소리가 없어 베트남 학습자들이 발음할 때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는 조음위치에 따라 비교해 보면 베트남어는 한국어에는 없는 자음인 순치음 [f]와 설첨후인 위치에서 발음되는 권설음들이 있다. 따라서 베트남어권 학습자가 한국어의 양순음 /ㅍ/을 순치음으로 발음하는 오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2.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모음 대조

현대 한국어의 모음은 모두 21 개이다. 이 중에서 단모음은 /ㅣ, ㅘ, ㅙ, ㅚ, ㅛ, ㅜ, ㅡ, ㅓ, ㅕ, ㅗ, ㅛ/ 10 개 있고, 이중모음은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11 개가 있다.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에 입술과 혀가 움직이지 않고 같은 위치를 유지하면서 발음하는 모음이며,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의 입모양이 변화가 일어나는 모음이다.

현대 한국어의 단모음은 10 개가 있는데 그것을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원순모음/ 평순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분류를 한다. 이중모음은 [y]계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 [ɯ]계 이중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의 모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 <표 5>과 같다.

혀의 전후 혀의 높이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i]	기 [y, ü]	ㅡ [ɨ]			ㅓ [u]
중모음	에 [e]	이 [ø, ö]	어 [ə]			ㅓ [o]
저모음	ㅐ [ɛ]		ㅏ [a]			

<표 4> 한국어의 단모음

[y]계 이중모음	ㅑ [ya]	ㅓ [yə]	ㅠ [yo]
	ㅠ [yu]	에 [ye]	ㅐ [yɛ]
[w]계 이중모음	ㅑ [wa]	거 [wə]	
	ㅐ [wɛ]	개 [we]	
[w]계 이중모음	ㅑ [wi]		

<표 5> 한국어의 이중모음

베트남 모음은 한국어의 모음과 같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분류된다. 베트남어 단모음체계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누어진다. 전설모음은 평순모음만이 가지고 있는 반면 후설모음은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을 가지고 있다. 기본모음 /a, e, i, o, u, y/ 6 개가 있고 여기서 변형된 모음 /ä, â, ê, ô, ɔ, ʊ / 6 개가 있다. 따라서 단모음은 모두 12 개이지만 /y/는 /i/와 같은 음이므로 모음은 11 개 음이다. 그리고 베트남어의 반모음은 2 개가 있다. 그것은 반모음 /y/와 반모음 /u/이다.

베트남어의 이중모음은 /iê, uɔ, uô/ 3 개가 있다. 베트남어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단모음을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여기서 단모음 /i/가 단모음 /ê/와 결합하면 /iê/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i/와 /y/가 같은 음이므로 이중모음 /yê/도 형성된다. 그리고 다른 단모음들과 결합하며 /iê, uɔ, uô/부터 /ia, ya, ua, ua/의 다른 변이형들까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쉐우티투튀(2011)에서 한국어와 같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는 현상도 베트남어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그것들은 반드시 반모음인 중간음 /-u-/와 단순모음인 주음이 연결되는 모음조합인 것이다. 베트남어 모음조합은 /ui, uy, uê, oe, uɔ, uâ-, ua, uă-/ 등이

있다. 그리고 단순모음이 반모음과 결합하는 것은 베트남어에도 있다. 그것은 단순모음인 주음과 반모음인 끝음이 연결되는 모음조합이다. 예를 들어서 /ai, ai, iu/ 등이다. 또한 이중모음인 주음이 반모음인 끝음과 결합되는 모음조합은 /iew (iêu, yêu), uɣj (uɣi), uɣw (uɣu)/ 등이다³. 베트남어의 모음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혀의 위치 입술 모양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평순		원순	
혀의 높이	단모음	이중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고모음	i / y [i]	iê [ie] ↓ ↓ ↓ ia yê	ɯ [ɯ]	uɣ [u ɣ] ↓ uɣa	u [u]	uô [uo] ↓ ua
반고모음	ê [e]	ya	σ [ɣ] / â [ɣ̃]		ô [o]	
저모음	e [ɛ]					
반저모음			a [a] / ă [ã]		o [ɔ]	

<표 6> 베트남어의 단모음체계

2.3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운소 대조

2.3.1 한국어의 운소

운소(韻素, prosodeme)의 대표적인 예로는 ‘길이 (장단), 높이 (고저)와 세기 (강세), 억양’ 등을 들 수 있는데 한국어 표준어에서 운소로 기능하는 것은 길이, 즉 장단(長短)이다. ‘장단’은 한 음소를 발음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지속시간을 말하는데 운소로서의 길이는 절대적인 길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길이이다. 소리의 길이가 길고 짧음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단어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눈[眼]/눈:[雪] 돌[週]/돌:[石]
 말[馬]/말:[言] 못[釘]/못:[不能]
 밤[夜]/밤:[粟] 사과(沙果)/사:과(謝過)

³ 찌우티투튀(2011)에서 참조.

한국어에는 음의 ‘높이’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일부 방언에서 ‘고저’가 의미 변별 기능을 하지만,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음의 ‘강세’를 운소로 쓰이지 않으며, ‘억양’은 한국어의 경우 문장의 끝 높이를 말하는데, 단어의 의미를 변별한다기보다 문장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

2.3.2 베트남어의 운소

베트남어가 성조어이다. 베트남어는 6 성을 갖고 있고 성조의 종류에 따라 음의 고저와 청탁으로 구별된다. 이들 성조의 표시는 단어의 모음의 아래 또는 위에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한다.



<표 7> 베트남어 성조의 오도표기법

성조	고, 저	부호	발음 요령	보기
Thanh ngang	고	표시없음	변화없고 단조로움	ma (귀신)
Thanh huyền	저	`	약간 내림	mà (그런데)
Thanh sắc	고	´	올림	má (엄마)
Thanh hỏi	저	h	내리고 올림	mả (무덤)
Thanh ngã	고	~	올리고 내리고 올림	mã (말 馬)
Thanh nặng	저	ì	완전 내림	mạ (모)

<표 8> 베트남어의 성조

베트남어에는 t, p, ch, c 를 종성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무조건 올림기호(´)나 완전 내림기호(i)로 표시되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dáp" (답하다) "dáp" (밟다)과 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들은 올림기호(´)나 완전 내림기호(i)로 표시되어 있다. 이 규칙 때문에 성조가 없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2.4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의 문제점 탐구

한국어 자음 체계와 달리 베트남어의 자음은 유성음, 무성음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를 발음할 때 무성음과 유성음의 변별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어는 순음이 양순음, 순치음으로 대립되어 /f/와 같은 자음은 영어의 발음과 같은 조음위치와 다른 방법을 갖는다. 따라서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양순음 /ㅍ/을 발음할 때 마치 영어의 순치음 /f/로 발음을 하기 쉽다.

한국어, 베트남어의 폐쇄음을 대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평음과 경음의 대립이다. 베트남어에는 평음과 경음의 대립이 없지만, 한국어의 경음과 비슷한 발음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경음 /ㅃ/, /ㄸ/, /ㄱ/은 베트남어의 무기음인 /b/, /d/, /g/와 거의 비슷한 소리로 대응될 수 있고, 한국어의 격음 /ㅌ/, /ㅋ/은 베트남의 유기음 /th/, /kh/와 거의 비슷한 소리로 대응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어의 자음 체계에는 한국어와 같은 경음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그’나 ‘가’가 [끄]나 [까]로 발음된다. 이는 그들의 모국어인 베트남어의 유사한 발음에 평음을 대치시켜 경음 오류를 생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베트남어 자음에 한국어와 같은 평음이 있어 한국어의 평음을 발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단음절 고립어이자 성조어인 베트남어 발음 시 단어에다 악센트, 즉 성조의 변함없이 단어의 강세를 넣는다 하더라도 단어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성조어인 베트남어권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보인다.

한국어 음문상에 구개음화, 경음화, 격음화, 비음화, 유음화, 조음위치동화, 모음조화 등의 규칙들이 있는데 이들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발음 교육 시키는 데 가장 어려운 내용들이다. 특히 경음이 없는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 음운 규칙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여 오류를 범하게 되거나 한국어를 표기된 대로 그대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다.

조음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어에 파찰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명확하게 발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국어의 파찰음이다. 베트남어에는 파찰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ㅈ, ㅊ, ㅉ/의 발음을 특히 어려워한다. 또한 /ㅅ/과 같은 마찰음은 모국어의 간섭을 매우 크게 받아 /ㅅ, ㅆ, ㅈ, ㅉ/의 발음 구별을 고급 단계에서도 어려워한다.

한국어 자음 발음을 교육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바로 /ㄹ/의 발음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유음인 /ㄹ/이 초성 자리로 올 때 [r]으로 발음하는데 종성 자리로 올 때는 [l]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음절 초성에는 /l/발음이 나오지만 종성으로는 오지 못하여, 외래어에 /l/을 종성으로 하는 단어는 /n/으로 고쳐 발음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신문에서 ‘서울’을 ‘Seoul’로 적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실제로 [서운]으로 읽는다. 또는 베트남에서 북쪽과 남쪽 간의 발음 차이로 인해 초성 자리에 오는 /n/와 /l/의 발음을 구별 못 하는 학습자들은 초성 자리에 ㄴ/ㄹ으로 나오는 한국어 단어를 발음하기를 어려워한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종성 /ㄹ/을 발음할 때 모국어의 간섭을 많이 받아 제대로 발음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베트남어는 성조어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성조를 가진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 발음을 할 때 습관 대로 성조를 붙여 발음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베트남어에는 /t, p, ch, c/를 종성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무조건 올림기호나 내림기호로 표시되어야 된다. 그리하여 "sách" (책) "sạch" (깨끗하다)과 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들은 올림기호(´)나 내림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ㄱ, ㄷ, ㅈ, ㅊ, ㅉ, ㅅ, ㅆ, ㅈ, ㅉ/가 종성으로 끝나는 한국어 단어들을 발음할 때 대부분 베트남의 올림기호(´)나 완전 내림기호(̣)를 붙여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자면 ‘학교’와 ‘극장’과 같은 단어들이 거의 ‘학^ㅏ교’, ‘극^ㅏ장’으로나 ‘학_ㅏ교’, ‘극_ㅏ장’으로 발음하거나 ‘극’자의 겨우 힘을 써서 경음으로 발음하는 학습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두 글자가 모두 종성인 /ㄱ/으로 끝나는 ‘착각’과 같은 단어의 경우에는 베트남 학습자

들이 발음할 때 억양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워하게 된다.

모음 교육을 할 때 베트남어 단모음이 한국어 발음과 유사하지만 베트남어 이중모음은 한국어 이중모음과 달리 하나 하나 발음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y]계, [w]계 이중모음 발음 지도에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어의 모음에도 [y]계 이중모음이 있는데 이는 발음상 한국어의 [y]계 이중모음과 다르다. 한국어의 [y]계 이중모음인 /야, 여, 요, 유/가 발음들은 베트남어의 초성자리에 나오는 /d/와 같은 음가를 갖는다. 따라서 초급단계 학습자들이 /야, 여, 요, 유/를 발음 시 자모의 결합으로 착각할 경우도 있다. 또는 베트남에서는 남쪽과 북쪽 간에 사람들의 /d/ 발음에도 차이가 있다. 남쪽 사람들은 /d/를 한국어의 /여/자와 비슷한 음가로 발음한다. 따라서 /야, 여, 요, 유/를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쪽 사람들은 /d/를 /gi/로 발음하기 때문에 /야, 여, 요, 유/를 발음 시 /쟈, 저, 죠, 쥬/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 출신 사람들은 방언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모음을 발음할 때 또 다른 문제들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Binh Dinh 성 학습자들은 /예/를 /여/로 발음하거나 남부지방에서 올라온 학습자들은 /의/를 /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모음 발음 교육을 시키기 위해 초급단계부터 모음 발음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3.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지금까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대조를 통해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의 문제점에 대해서 탐구해보았다. 각 내용에서 대조를 하면서 한국어 발음 교육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3 절에서는 본고는 한국어 발음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제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허용·김선정(2006:62-67)에서는 한국어의 자음을 가르칠 때에는 무엇보다 먼저 듣기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듣기 활동을 통해 소리를 올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바른 발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듣기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발음을 해야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할 때 초급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교사가 ‘단어 듣고 따라하기’, ‘반복 읽기’ 등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면 학습자들은 올바르게 발음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처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모음을 지도할 때에는 자음을 가르칠 때와 마찬가지로 듣기 연습을 통해 소리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자음과 모음 지도를 할 때 초급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특히 초급단계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교육을 위해 발음 수업을 따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처음에 한국어를 접하게 되는 학습자들에게 발음을 연습하고 고쳐 말하기를 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장기 기억 장치에 스키마의 형태로 저장될 수 있음으로 학습자가 올바른 발음을 점점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3 급이나 4 급 단계로 올라갈 때 한국어 음운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내용에 넣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때 한국어 능력 숙달되는 학습자들에 한국어와 한국어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게다가 학습자들이 공부했지만 이해가 안 된 발음 규칙들을 알게 되면 그 규칙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는 음의 장단이고, 베트남어는 음의 고저이다. 하지만 한국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베트남어는 음의 고저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발음 교육을 시킬 때 성조 즉, 음의 고저를 넣어 발음하기 때문에 성조 없이 일정한 음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적당한 시청각 보조 자료를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한국인이 하는 발음을 듣고 정확한 발음을 인식하여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청각 보조 자료들이 단어 단위부터 문장 단위까지 구성하면 학습자들은 올바른 발음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하는 억양을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효과적인 발음 교육에 있어서 다른 지방에서 온 학습자들 간 발음 연습이나 비교를 하여 학습자들이 서로의 발음 차이점을 알아보고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맺는말

본고에서는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의 문제점에 대해서 탐구해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대조를 통해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두 언어의 음운체계 차이점을 살펴봄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살펴봤다.

언어마다 다르다.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모국어의 영향을 불가피하나 각 언어의 특징을 잘 알아보면 교수학습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론 측면에서만 다루다보니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하고 분석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아 본 논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 김정숙(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 『한국어 교육 연구 3』, 한국어교육학회.
- 배주채 (2007),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신지영·차재은(2007), 「우리말 소리의 체계-국어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이익섭(2007), 「국어학 개설」, 學研社
- 전혜경(2004), 「베트남어 회화 I」, 문예림
- 조명숙(2002), 「베트남 대학 내 한국어 교육 현황과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제 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 조명숙(2005), 「베트남에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론 III』, 한국문화사
- 쨌우티투튀(201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론적 대조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허용·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역락.
- 허용 외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 Bùi Tất Tươn (Chủ biên) (1995), 「Gáo trình Tiếng Việt」, Nxb. Giáo dục.
- Brown, H. Douglas (1999), 「국어 학습, 교수의 원리 제 5 판」, Longman.
- Đoàn Thiện Thuật (2002), 「Ngữ âm tiếng Việt」, Nxb. ĐHQG Hà Nội.
- Nguyễn Văn Huệ (2008), 「Vietnamese as a second language 1」, Nxb. Đại học Quốc gia thành phố Hồ Chí Minh.